

광주 민간·군공항 '무안 통합이전' 본궤도

국방부 주관 무안서 첫 주민설명회
'1조+α' 이전주변지역 지원 구체화
반도체 팹 유치·RE100 산단도 협의
오늘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할 듯

광주 민간·군공항 무안 통합이전 사업이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에 앞서 진행된 무안군민 대상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광주시가 국방부에 군공항 이전을 건의한 지 13년만이다.

▶관련기사 3·5면
국방부는 주민설명회에 이어 이르면 2일 무안을 광주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선정할 것으로 보여 향후 이전 후보지 선정,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 주민투표, 최종 이전부지 선정 등 관련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국방부는 1일 오후 2시 무안군 송달문화예술회관에서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 이전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상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전 단계에서 마련된 설명회는 2024년 4월 무안군 초당대학교에서 개최된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 소음대책 마련 토론회' 이후 약 2년 만에 열린 정부·지자체 주도 무안군민 대상 공론의 장이라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됐다.



공항 이전 설명회 관심 집중 '광주 군공항 주민설명회'가 1일 오후 무안군 송달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국방부·전남도·광주시·무안군 관계자와 무안군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조영권 기자

국방부는 이날 대통령실 주도 광주 군공항 이전 6자 협의체(광주시·전남도·무안군·재정경제부·국방부·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공동 합의문에 명시한 이전 주변 지역 지원 규모를 '1조원+α'로 구체화했다.

구체적으로 기부 대안역 차액 6천400억원과 광주시 자체 조달 1천500억원, 국가 농업 AX 플랫폼

구축(2천900억원), 무안공항 항공 MRO 센터(200억원) 등 10개의 정부정책 지원 사업 등이 포함됐다. 무안군이 군공항 이전에 따라 정부의 획기적인 센터로 요구한 무안 국가산단 조성에 따른 반도체 팹 유치, RE100 산단 구축 국가지원도 청와대 등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 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국방부는 이날 중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을 시작으로 이전 후보지 선정,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 주민투표, 이전부지 선정 등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일정도 분명히 했다.

국방부는 무안군민 설명회 이후 이르면 2일, 늦어도 이번 주 중 무안을 광주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선정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면에 계속 /양시원·무안=김상호 기자

농협중앙회장 선거 2028년 '직선제'로

회장 임기도 4년→3년 단축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오는 2028년부터 기존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전환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거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전체 농업 조합원 약 204만 명 가운데 중복 조합원을 제외한 약 187만 명이 1인 1표의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그동안 조합장 1천110명이 투표하는 간선제로 치러졌던 선거 방식을 조합원 직접 투표로 바꾸면서 조합원 주권을 강화하고 회장의 대표성을 높이고 금품선거 등 부작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당정은 지난 1월 농업 개혁 추진단을 발족한 데 이어, 지난달 11일 열린 농업 개혁 당정협의회에서 조합원 참여 확대와 금품선거 유인 축소를 목표로 선거제 개편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후 전문가와 외부 인사로 구성된 농업개혁 추진단은 직선제와 선거인단체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왔다.

당정은 오는 2028년 3월 예정된 차기 중앙회장 선거부터 직선제를 도입하고, 회장 임기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한 2021년부터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중앙회장 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방안도 추진한다. /안태호 기자

통합특별시장 경선... 민형배·주철현, 꺾 단일화

6·3 지방선거 D-62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과 주철현 국회의원(여수갑)이 민 후보로의 단일화를 선언, 하루 앞으로 다가온 본경선판이 출렁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참여경선(권리당원 50%+일반여론조사 50%) 방식의 민주당 통합특별시장 본경선은 기호 1번 신정훈 국회의원과 기호 2번 민형배 국회의원, 기호 5번 김영록 예비후보(전남지사 직무정지) 간 3강 체제로 오는

신정훈·김영록 후보와 3강 '진검승부'

朱 후보 사퇴 "승리의 밀알 되겠다"

꺾 "권역별 강점 살려 격차 없앨 것"

3-5일 치러진다.

▶관련기사 2·3면
민 후보와 주 후보는 1일 여수세계박람회장 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성공적인 출범과 산업경제 대전환을 위해 공동의 가치와 정책 연대를 바탕으로 후보 단일화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사진> 이어 두 후보는 "수도권 일극 체제의 거센 파

도를 넘어 전남·광주의 찬란한 대도약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두 손을 맞잡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단일화 발표와 함께 주 후보는 후보직 사퇴 입장을 표명했다.

주 후보는 "제가 품어온 전남·광주 대도약의 꿈을 민형배 후보의 어깨에 얹으며 후보직을 내려놓겠다"며 "저를 향했던 지지와 열망까지 모두 모아 민 후보의 승리의 밀알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에 민 후보는 "주 후보가 준비해 온 공약과 비전은 결코 사그라들지 않고 더욱 단단해지고 확장될 것"이라며 "주철현과 민형배가 힘



을 모아 동부권, 서부권, 광주권의 권역별 강점을 살려 지역 간 격차를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민 후보는 또 "두 후보가 준비한 정책과 공약을 하나로 모아 통합특별시장의 중장기 비전과 전략의 청사진으로 재탄생시키겠다"며 "산업

정책, 교통·인프라, 교육·복지, 농어촌·어촌, 기후·환경, 청년·미래일자리 전 분야에 걸친 통합 로드맵을 투명하게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 후보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평가하는 '시민주권 통합특별시장'의 토대를 함께 세우겠다"며 "주철현의 꿈은 민형배의 꿈이고, 주철현의 비전은 민형배의 약속이 될 것"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김재정·변은진 기자

Today

광주 우치동물원 '동물과사는 남자' 6면

남도인물열전·日성리학 아버지 '강항' 14면

네일·올리 KIA '원투펀치'가 희망이다 16면

청산도에서 치유해 봄

청산도 슬로걸기 축제

2026. 4. 1. ~ 4. 30.
슬로시티 청산도 일원

주최 | 완도군 | 주관 | 청산도슬로걸기축제추진위원회

2026 Pre 완도국제

해조류 박람회

기후리더, 해조류가 여는 바다미래

2026. 5. 2. SAT - 5. 7. THU
완도군 해변공원 및 해양치유센터 일원

2026 Pre Wando International Seaweed Exhibition

완도군 | 완도해조류박람회추진위원회